

일반논문

김양선 | ‘한국여류문학상’이라는 제도와 196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

안미영 | 1970년대 소녀 판타지의 한 기원

- 구혜영의 『불타는 신록』(1973)을 중심으로 -

이선옥 | 한국적 칙릿의 특성-정이현 소설의 자기 풍자

이소희 | TV 드라마에 재현된 여성노인의 삶 연구

- 성공적 노화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

‘한국여류문학상’이라는 제도와 1960년대 여성문학의 형성*

김양선**

「차례」

1. 서론-‘한국여류문학상’이라는 문제설정
2. ‘한국여류문학상’의 기획의도와 기존 연구 검토
3. 한국 현대사의 젠더화
남성성의 몰락과 재생, 제도화와 저항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여성성
4. 부르주아 가정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제도화
5. 대중성과 계몽성 사이에서 씨름하기, ‘한국여류문학상’이 남긴 것

〈국문초록〉

본고는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계기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총6회에 걸친 ‘한국여류문학상’은 전후 여성문학 장의 세대 변화 및 당대 주류 담론이 여성에게 요구한 여성성의 자질과 여성 주체의 욕망 간의 갈등과 경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수상작 각각에 대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일종의 경향성을 추출하고자 했다.

첫째, ‘한국 현대사의 젠더화-남성성의 몰락과 재생, 제도화와 저항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여성성’에 해당하는 작품군에는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최정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19661)

** 한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회의 『인간사』, 손장순의 『한국인』 이 있다. 이 소설들은 한국전쟁과 전후, 4.19와 그 직후를 배경으로 국가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리고 있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남성성의 위기와 몰락, 지배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여성성에 순응하는 한편 저항하는 여성성의 양가적 측면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둘째, ‘부르주아 가정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제도화’에 해당하는 작품들로는 강신재의 『이 찬란한 슬픔을』, 전병순의 『또 하나의 고독』 을 들 수 있다. 두 소설은 중산층 부르주아 가족을 지탱하는 스위트홈의 이미지를 사랑이 결여된 가족, 가족제도 밖의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여성을 통해 비판한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실패하고, 여성들은 갈등 끝에 가정으로 귀환하거나 제도 밖의 사랑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여성성, 제도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강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 여성문학 장에서 한국여류문학상은 장편소설의 여성화라는 탈중심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 신진여성작가들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또한 수상작들은 1960년대 여성지식인 및 부르주아 여성의 취향이나 욕망을 대변하고, 연애와 결혼제도라는 사적 영역의 프리즘으로 1960년대 한국사회를 진단하며, 한국사회의 불안과 병폐, 위기 상황을 남성성의 위기로 표현함으로써 여성작가와 여성독자들의 공통 감각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한국여류문학상, 1960년대 여성문학 장, 여성성의 제도화, 가정소설, 낭만적 사랑, 취향, 공통감각

1. 서론- ‘한국여류문학상’ 이라는 문제설정

195·60년대는 한국문학 장 전반에 걸쳐 세대교체가 단행되면서 다양한 경향의 신진작가군이 등장한 시대였다. 여성문학 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정희, 박화성, 장덕조, 모운숙, 노천명, 임옥인 등 일제 말기 여성작가군

을 잇는 새로운 여성작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박경리, 강신재, 전병순, 박순녀 등 신진 여성작가들은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 이후 항상 수적 열세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았던 전 세대 여성작가들과는 달리 각기 뚜렷한 작품세계를 확보하면서 전후(戰後), 그리고 1960년대 문학에서 남성작가들과는 다른 경향성을 드러냈다.

특히 1960년대는 전후에 등장한 여성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잡지나 신문 연재 등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독자적인 여성작가 집단이 결성되는 등 여성문학의 독자성이 확보된 시기였다. <한국여류문학인회>가 결성(1965년)되고, 『한국여류문학전집』, 『한국여류문학33인집』 등의 독자적인 정전 만들기 시도된 것도 이 시기이다. 여성들의 글쓰기 욕망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남성중심적인 문학 제도와 경합하면서 독자성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195,60년대 여성문학을 제도적 차원에서 규명한 대표적인 성과로 박정애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정애는 1950년대 이후 등단한 여성작가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1965년 한국여류문학인회 결성, 기관지 <여류문학> 발간 등을 통해 ‘여류’로서의 ‘아비투스’를 공유했다고 보았다.¹⁾ 하지만 박정애의 연구는 대상 텍스트가 기관지 <여류문학> 1,2호와 개별 작가들의 몇몇 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195,60년대 여성작가들이 ‘여류’의 정체성을 승인하고, 가면으로서의 글쓰기를 통해 지배 담론과 문화에 순응했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면이 있다.

김양선과 이선옥의 연구²⁾는 전후 발간된 여성지들이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문학의 제도화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여원』의 문학섹션에 주목하여 여성지가 문화나 교양에 관심 있는 고학력 중산

1)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논문, 2003, 5쪽.
 2)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여성잡지와 여성문학의 공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이선옥, 『『여원』의 중심 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 -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층 여성독자를 흡수하면서, 자기 매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문학제도화의 장을 통해 이 여성독자들의 작가되기를 실현했다고 보았다. 이 잡지들은 여성작가군의 확대,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장 확보, 여원신인문학상 제정을 통한 여성작가 발굴, 연재소설을 통한 여성문학의 대중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것이다.³⁾ 이 연구들은 순문학 중심, 문예지나 사상지 중심의 엄격한 등단제도로 이루어진 기존 문단과는 달리 여성의 교양열과 대중의 망탈리테와 교호하면서 형성된 여성문학 장의 차별성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선행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이전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 했던 빈틈에 주목할 것이다. 즉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계기를 규명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여류문학상’을 연구하려고 하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여류문학상’이 시행된 1964년부터 1969년은 전후 여성문학 장의 세대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한국여류문학인회>가 1965년에 결성되면서 독자적인 작품집과 전집을 발간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여류문학상’은 기존 문학 장과는 차별화된 지점에서 시도된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정전 형성 욕망 및 여성의 글쓰기 양상을 해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여류문학상’은 같은 시기의 여러 문학상들과 비교해서도 차이가 있다. 『사상계』의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의 ‘현대문학상’은 소위 본격문학, 순문학으로 인정받으면서 수상 작가들이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로 문학 장에 공고히 자리하게 된다. 반면에 ‘한국여류문학상’은 장편소설, 대중소설,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었던 소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상 작품들이 문학적 수준이나 권위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기존의 경직된 문학 장의 논리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

3) 김양선, 위의 논문, 65쪽.

다. 수상작품들의 장르적, 매체 연계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 ‘한국여류문학상’은 독자와 시대의 욕구를 반영하고 본격문학 장의 빈 틈을 공략함으로써 다른 문학상들과 차이를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60년대 문학 장의 이면을 탐사하고, 소위 젠더와 장르의 층위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된 면모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품들을 통해 당대 주류 담론이 여성에게 요구한 여성성의 자질과 여성 주체의 욕망 간의 갈등과 경합 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류문학상’이 제정, 운영되기 시작한 1965년은 여성의 삶과 관련해서 모종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국가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성에게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자질이 요구되었다. 국가주의에 의해 호명되고 재정의된 여성의 지식과 자질을 수용할 주체는 절제된 소비와 내핍, 현명한 교육 등을 행하는 주부이거나 서구적인 문화교양을 습득한 중산층 여성이거나 여대생이었다. 본고는 국가주의, 협의로는 여성에게 습득되고 주어진 여성성이 문학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데 수상작품들이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이 글은 총 6회에 걸친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품 각각에 대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일종의 경향성을 추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이 여성문학 장의 형성 계기를 규명하는 데 있는 만큼 남성 중심의 문학 장과는 변별되는 여성문학 장만의 독자적 성격을 파악하려면 공통된 경향성을 추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전후(戰後), 그리고 4.19라는 현대사의 분기점을 거치면서 어떻게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변화와 여성 삶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곤 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상작 내부의 차이, 즉 각 작품의 주제, 다루는 시대, 여성주체의 형상화 방식의 차이, 창작주체의 세대별 차이를 염두에 두되 1960년대 여성문학의 특성이 수상작품들에 어떻게 공통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한국여류문학상’의 기획의도와 기존 연구 검토

‘한국여류문학상’은 195·60년대 대표적인 여성 교양잡지인 『여원』에서 제정하였다. 『여원』은 발간 100호 기념으로 ‘한국여류문학상’을 창설한다. 기획의도는 “여류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여류문단의 난만한 개화를 위하여”라고 밝혔으며, 심사원칙은 “한국여류기성작가로 해당기간에 신문, 잡지, 단행본으로 발표된 소설 중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1편에 수상한다는 것,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류신인문학상’을 통해 대중잡지 그것도 여성독자 대상 잡지로서는 희귀하게 여성작가들이 문학 장에 진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여원』은 이제 이미 여성문학 제도에 안착한 작가군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만듦으로써 정전형성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다. ‘한국여류문학상’은 잡지가 폐간되던 때까지 6회에 걸쳐 수상되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제1회(1964.10) : 최정희 『인간사』 (1960.8-10월 『사상계』 연재, 1963.11-1964.3 『신사조』 연재)
- 제2회(1965. 10) : 박경리 『시장과 전장』 (전작장편, 현암사, 1964)
- 제3회(1966.11) : 강신재 『이 찬란한 슬픔을』 (『여상』 연재, 1965)
- 제4회(1967.10) : 손장순 『한국인』 (『현대문학』 연재, 1966.1-1967)
- 제5회(1968.11) : 전병순 『또 하나의 고독』 (『조선일보』 연재, 1967)
- 제6회(1969.11) : 임옥인 『일상의 모험』 (『현대문학』 연재, 1968.1~1969.4)

그런데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개별 연구는 있지만 여성문학 제도와 여성문학 장을 구성하는 특정 세대, 특정 시대와의 조응을 염두에 두면서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⁴⁾ 아쉬우나마 개별 연구들

4)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 목록은 아래와 같다.

김복순, 「전향자의 역사 다시 쓰기-최정희의 『인간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의 경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김복순은 최정희의 『인간사』를 ‘전향자의 역사 다시쓰기’ 관점에서 보면서 반공주의에서 주체의 성별을 배치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특히 작품 후반부에서 전향자들을 4.19의 역사적 주체로 형상화하고, 반공주의의 젠더를 남성(성)으로 고착하고 여성성을 모성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성의 구현이라는 소위 최정희적 경향에서도 멀어졌다고 평가한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김양선은 이 작품이 한국전쟁을 젠더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기존 논의에서는 여성-지영의 서사가 현실의 시장을, 남성-기훈의 서사가 전장의 이념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나, 독립된 두 서사가 이면적으로는 ‘낭만성’으로 연결되며, 이 낭만성이 근대의 부정성이 낳은, 남성성의 형식인 전쟁을 비판하는 의미

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조남현, 『『시장과 전장』의 이념 검증』, 『한국 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임경순,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구원의 문체와 여성의 인식방법』,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체』, 소명출판, 2005.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박정애, 『여성작가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여성문학연구』 1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최정희, 『1960년대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근대화의 ‘망탈리테’ 연구-〈여성〉 담론과 『이 찬란한 슬픔을』에 나타난 여성 교양의 의미와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5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전혜자, 『현대소설의 도시생태적 독법에 대한 연구-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2호, 현대소설학회, 1999.

장두영, 『불행, 성숙에 이르는 길-『한국인』의 손장순론』, 방민호 외,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임금복, 『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 장편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7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서정자, 『자기의 서사화와 진정성의 문제-임옥인의 『일상의 모험』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제2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2.

를 띠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복순 역시 여성서사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념과 사랑이라는 두 구원의 방법 중 후자에 의해 전자가 통합된다고 보았다. 박정애는 소설의 모녀관계에 주목하면서, 주인공 지영의 자아탐색의 서사이자 성장의 서사로 이 작품을 정의한다. 강신재의 단편이나 장편 『임진강의 민들레』 등에 비해 『이 찬란한 슬픔을』은 강신재 작품연구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최근 최경희의 연구는 잡지 <여상>의 여성교양 담론을 근거로 삼아 이 소설이 지배적인 여성교양 담론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근대화의 망탈리테와 여성의 내면 내지 욕망 간의 균열과 갈등을 그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강신재의 소설과 1960년대 여성교양 담론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정작 작품에 대한 분석은 소략하여 균열과 갈등의 양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김은하는 강신재의 장편소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찬란한 슬픔을』이 중산층 가정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심미적 불륜소설이라고 정의하고, 작품에 내재한 순응과 일탈, 저항의 양면성에 주목하였다. 손장순 문학과 관련해서는 최근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이 발간되면서 작품세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비교적 초기 연구인 전해자의 글은 『한국인』을 도시소설로 분류하고, 이 작품이 1960년대 초반 아노미 상태의 서울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전근대적 의식과 엘리트로서의 자의식 간의 간극으로 인해 뒤틀린 미국 유학생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를 조명하였다고 보았다. 장두영은 작품의 기본적인 서사전개인 남녀의 만남과 헤어짐이 일종의 인정투쟁과 관련이 있으며, 전지적 작가 시점과 인물의 관찰자적 시점을 활용하여 당시 한국 사회의 세대와 모순을 지식인 인물을 통해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특히 희연이라는 여성 인물의 내적인 성장 과정에 주목하고는 있으나 이를 여성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한편 임금복은 전병순의 장편대중소설 전체를 조명하면서 『또 하나의 고독』을 독신여성이 유부남과 정신적 관계를 모색하다 실패하고 독립적 삶을 추구하는 소설이라고 정리한다. 그렇지만 1960년대 중산층 가족제도의 모순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주체의 노

력이라든지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짚지는 못 하고 범박한 줄거리 소개에 그치고 있다. 서정자의 연구는 임옥인의 『일상의 모험』에 대한 유일한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자기의 서사화’, 즉 사소설 쓰기를 통해 새로운 주체 확립을 꾀한 소설로 평가하면서, 일상적인 것,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 역시 사소설이라는 형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여성문학적 접근이나 1960년대 여성문학 장에서 임옥인의 위치, 해당 작품이 지닌 위상 등에 대한 맥락적 접근은 미흡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들에 대한 개별 연구들은 작품에 대한 재조명과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의미가 있으나 1960년대 여성문학 장에서 이 작품들이 지닌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또한 작품 분석에서도 최정희, 박경리, 강신재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품들에서 젠더 정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 전후 현실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규명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글은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들에 내재한 시대적 배경과 이념이 한국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수상작들은 대개 식민지 시기, 해방 전후, 한국전쟁기, 전후부터 4.19 혁명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다루거나 전후와 4.19 혁명 후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남성의 서사와는 다르다. 즉 여성의 성장이나 일상과 밀착한 ‘젠더화된 서사’로서의 특성을 띠는 것이 본고의 가설이다. 작품들은 전쟁, 4.19와 같은 국가적 의제나 위기 상황이 개인-여성의 일상이나 주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생존, 성장, 혁명, 낭만적 사랑, 청춘의 열정과 같은 작품의 핵심 주제들은 여성을 사적 영역에 한정해 파악하고 의미화하는 고정 관념을 비껴간다. 또한 ‘한국적인 것’(혹은 민족적인 것)의 정체성을 표층적으로 의제화하지 않더라도 ‘가정소설’과 ‘낭만적 사랑’이라는 여성소설의 하위 양식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국가주의가 요구했던 여성성, 가정성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및 여성작가 작품들의 공통적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작품의 경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사의 젠더화’와 ‘부르주아 가정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제도화’가 그것이다.⁵⁾

3. 한국 현대사의 젠더화-

남성성의 몰락과 재생, 제도화와 저항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여성성

박경리 『시장과 전장』, 최정희 『인간사』, 손장순 『한국인』은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기, 전후(戰後), 4.19혁명과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한국인’=민족적 주체의 정체성 확립을 다룬 작품들이다. 첫 번째 경향의 작품들을 시대 순으로 배열하면 박경리 『시장과 전장』, 최정희 『인간사』 5부 이하, 손장순 『한국인』 순이 된다. 한국전쟁과 전후, 4.19와 그 직후를 관통하는 이 서사들은 한국 현대사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국가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리고 있다. 작품들의 공통점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남성성의 위기와 몰락, 지배 이데올로기가 요구하는 여성성에 순응하는 한편 저항하는 여성성의 양가적 측면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제2회 수상작인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을 ‘젠더화된’ 방

5) 단 6회 수상작인 임옥인의 『일상의 모험』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 했다. 애초 목적은 월남 지식인 여성의 망탈리테를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작품이 195,60년대 한국사회의 구조 변동과 젠더의식을 반영하지 않았고, 사소설의 형식을 띠었음에도 월남민이자 지식인,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중층적인 존재조건에서 비롯될 법한 고백의 진정성이라든가 사회적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여류문학상 전체를 조감하려면 사소설적 경향이라든가 일상성의 의미도 하나의 경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하는 게 마땅하나 ‘전후’, ‘젠더’, ‘여성문학 장’이라는 본고의 문제설정 및 범주화의 기준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논의의 집중성을 위해 배제했음을 밝혀둔다.

식으로 그리고 있다. 여성 주체가 경험하는 전쟁은 남성의 그것과는 다르다. 여성은 피해자로서, 혹은 남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생존의 영역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한다. 지영은 ‘전쟁’을 계기로 결벽성과 속물적인 세계에 대한 염증에서 벗어나 자식과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 가장으로 변화한다. 이 작품을 전방, 남성의 서사를 이끄는 코뮤니스트 기훈이 아닌 후방, 여성의 서사를 이끄는 지영이 겪은 전쟁을 중심축으로 놓고 볼 경우 여성이 겪는 전쟁 서사, 생존의 서사가 된다. 여성이 겪는 전쟁 서사가 남성의 그것과 다른 점은 전방이 아닌 후방, 이념대립이나 물리적 폭력이 아닌 생존과 생명이 주된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전쟁발발’이 지영의 성장을 유발하는 일차적 계기였다면 남편 기석이 입당원서건으로 잡혀 간 후 남편의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어머니와 아이들을 책임지는 여가장이 되는 것은 성장의 이차 단계에 해당된다. 어머니의 죽음 후 (잠재적인) 전쟁미망인이 되어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 것은 새로운 가정/가장으로 자기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전쟁/전후 소설들에서 여성들은 전쟁미망인이 되거나 가족의 와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쟁의 폭력성을 체험한다. 지영에게 “남아 있는 단 하나의 목표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이다. 하지만 얼핏 이 모성(성)에 기반한 가족보존의 욕망 이면에는 전쟁을 야기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 내재해 있다.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어머니의 세계에서 분리된 지영은 세계에 대한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삶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한다. 전쟁 전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두려워하고 고립을 자초했던 것에 비하면 현실 인식에서나 인간관에서 모종의 성숙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여성(성)을 전쟁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실천적인 가치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전후소설과는 달리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적 윤리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⁶⁾

6) 자세한 논의는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을 참고할 것

1회 수상작인 최정희의 『인간사』 전반부는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자의 전향 문제를 뒤틀린 남녀 관계,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연동하여 다루었다. 남성 주체 문오의 사상적 전향, 예컨대 출옥 후 무력감이나 친일협력(문화보국단 활동)보다는 ‘마채희’라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에게 빠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서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지식인 남성(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위험한 것으로 그려진다. 『인간사』 전반부에서 남성성의 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사회주의 성향의 남성들이 지닌 롬펜기질, 관념성, 반민중성 등을 폭로함으로써 사회주의/민족주의 남성성(허윤, 마채균)을 부정하는 것이 한 축이고, 무력감, 분노, 눈물, 감정과잉 등으로 현실에 반응하는 전향지식인들의 멜랑콜리한 남성성(강문오, 오경배)이 다른 한 축이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은 5부 이후, 즉 해방 후, 한국 전쟁과 전후, 4.19라는 한국 현대사의 전환기에 남성성의 위기는 어떠한 국면으로 전개되는가이다. 월남 전 문오의 개인사, 가족사는 반공주의적 색채를 띤 수난사로 볼 수 있다. 문오의 누이 남편은 ‘건국준비위원회’ 동료인 친구에게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려 배신당하고, 모친의 집은 일제 말기 피신했던 절에서 함께 기거했던 소작인 장선기에게 빼앗기고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한다. 월남 후에도 신탁반대운동, 동료 주의자들의 월북, 남한 단독 국회의원 선거, 연이은 한국전쟁과 피난 등 일련의 사회사의 와중에 사회주의/민족주의 남성(성)은 서사에서 사라지고, 이념보다는 옛 동지에 대한 책임의식(오경배)이나 마채희와 허윤이 남긴 자식들을 책임지는 아버지 노릇(강문오)을 행하는 멜랑콜리한 남성(성)이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멜랑콜리한 남성(성)은 문오가 전쟁 당시 정부가 서울로 귀환한 뒤 도강파=애국자, 비도강파=반역자로 분류하여 이념 검증을 하고, 허윤이나 하용빈 등 사회주의자들이 사형당하는 사태를 접하면 서도 탈이념적이고, 감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오직 하나뿐이던 적(일제)을 향해 화살을 쏘던 조선 사람의 멍치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네가 나의 적이 되고 내가 너의 적이 되어가는 꼬락서니를 보”(305)면서 느끼는 비애감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멜랑콜리한 남성(성), 이념적 판단을 정지한 남성은 휴전과 전후, 4.19혁명을 거치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체로 재탄생한다. 문오는 과거 연적이었지만 사형당한 허운을 대신해 그의 새 아내를 보살피고, 금아와 민을 양육하는 가장이자 아버지 노릇을 수행한다. 전후 부채한 혹은 몰락한 남성(성)의 회복은 당시 재건과 갱생, 신질서를 모토로 했던 국가주의 기획과 조응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 소설의 결말이다. 결말은 옛날 사상운동을 하던 때를 떠올리며 데모 대열에 참가한 문오의 죽음과 다음 세대인 홍기, 금아, 민이 4.19 혁명에 참가하는 것으로 끝난다. 즉 이 소설은 구세대=남성성의 퇴장과 신세대=청년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국가주의를 완성하려는 기획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패한 구질서의 퇴장과 청년 세대의 등장으로 상징되는 4.19혁명 이후 한국 현대사는 과연 새로운 것이었는가. 그리고 젠더적 관점에서도 새로운 것이었는가. 손장순의 『한국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소설은 세태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4.19 이후 사회의 혼란스런 풍속도를 파노라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로 관료, 부르주아, 미국 유학생 엘리트들이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파행과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을 폭로하는 데 서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미국 유학생 엘리트들의 현실부적응성을 남성성의 상실과 연동하여 그리고 있다. 소설의 초점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문회는 미국식 교육을 받았으나 한국의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의식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를 복합적으로 지닌 일그러진 남성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미국유학 출신 엘리트 한선등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타락하거나 남성성의 위기를 경험한다. 부르주아이거나 관료 출신 남성들도 위기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토착 중소자본가 출신인 관희는 사업 확장에 실패하

고, 편법과 5.16 주도세력 장교의 부인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도수는 계층 상승을 위해 부인을 버리고 장관의 딸과 결혼하기로 한 날 권총으로 살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남성성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작품은 해방 후, 한국전쟁, 제1공화국, 과도정부, 4.19혁명, 5.16군사쿠데타를 거치면서 난마 상태에 빠진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국면의 아노미 상태가 국가(주의)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적시한다. 부정과 부패, 탐욕과 사기, 모함과 술수, 권력과 돈이 만연한 상황에서 주체의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 작품은 작가의 편집자적 목소리가 텍스트 전면에도출되고, 작중인물들의 목소리 역시 반복적으로 60년대 초반의 정치, 사회, 경제의 기형성을 폭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 기형성은 예의 남성성의 위기로 드러나는데, 아내 혹은 연인과의 이성애적 관계보다는 동성애적 관계나 어머니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고착되는 것이다. 가령 문휘는 아내 희연에 대한 열등감과 사회생활의 실패를 자신보다 계층적, 연령적으로 약자인 남자아이와의 동성애적 관계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고, 한선은 실직과 별거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 끝에 미군 장교 킥스의 동성에 파트너가 되기로 한다.

작품은 남성성의 위기나 불안감이 남성 주체의 파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성(성)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문휘-희연, 한선-소라, 관희-혜미 이 세 부부관계는 모두 이혼, 별거, 성적인 일탈, 자살, 광기로 끝난다. 불구화된 남성성의 소유자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와 결핍을 가정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상쇄하려고 시도한다. 때문에 이들은 전통적인 여성성, 자신들의 상처받은 남성성을 전적으로 위안해 줄 여성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희연이나 혜미는 남녀성역할 분리 체계에서 가정에서의 현모양처 역할이 자신의 것임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때의 현모양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 재조정된 핵가족(사적 공간)의 운영자로서의 현모양처이다. 희연은 가정생활의 합리적 운영과 결혼 전과 같은 문화생활을 계속할 것을 꿈꾸지만 문휘의 계획성 없는 사업 확장, 온정주의적 태도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다. 헤미 역시 시집식구와의 합가로 인해 부르주아 가정의 스위트홈이 불가능해지자 이혼을 결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보여주는 1960년대 한국인의 상은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전후 혼란된 상황에서 국가주의가 추구했던 재건 프로젝트, 건강한 남성성과 현명한 주부=여성성의 구축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196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이 직조해 낸 아노미 상태의 한국 현실, 나르시시즘적이거나 콤플렉스로 얼룩진 인물들은 새로운 국가/민족의 건설을 위해서 타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이후 박정희 체제의 추진한 강력한 국가주의의 개발 프로젝트에 비취볼 때 그러하다. 부정과 부패, 나태함, 서구지향성 등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 문면에 감춰진 작가의 의도를 굳이 읽어내자면 아메리카니즘과 전근대적인 보수성의 기묘한 동거,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남성(성)은 새 국가 건설을 위해 부정해야 할 자질들이다.

작가의 의도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계몽적인 소설의 결론에서 드러난다.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했던 문휘가 한일합방 반대 시위대의 함성을 듣자 “갑자기 새로운 용기가 불쑥 솟아오르면서”, “어떠한 현실의 암초나 고통도 맞부딪칠 수 있는 강인한 저항력이 생겨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코리아를 떠나지 말고 코리아에서 코리아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다지는 것은 갓 시작된 박정희 체제의 독선이나 정치 이념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휘의 다짐은 대학생 시위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이 남성(성)의 갱생을 일깨우고, 새 질서를 이끌 주도적 가치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젠더의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려는 기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남성성의 몰락과 재생, 제도화와 저항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여성성은 당대 국가주의와 제도가 부정해야 할 것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을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에서 요구

한 자질이였다. 1960년대에 시작되어 1960년대에 끝난 ‘한국여류문학상’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면서 대중적 계몽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부르주아 가정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제도화

두 번째 경향은 전후 여성의 의식 및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들로서 부르주아 가정소설의 범주에 해당하는 강신재의 『이 찬란한 슬픔을』, 전병순의 『또 하나의 고독』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두 소설은 중산층 부르주아 가족을 지탱하는 스위트홈의 이미지를 사랑이 결여된 가족, 가족 제도 밖의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여성을 통해 비판한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실패하고, 여성들은 갈등 끝에 가정으로 귀환하거나 제도 밖의 사랑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여성성, 제도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강화하게 된다.

3회 수상작인 강신재의 『이 찬란한 슬픔을』에서 주인공 명혜는 기형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른 죽음을 목격하고, 연이어 첫사랑인 현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모성성과 순수한 감정의 교환에 기초한 사랑 모두에서 위기에 봉착한다. 그녀는 남편 용일의 독선적 성격과 바람기에 지친 끝에 만난 신문기자 기환과 운명적, 열정적 사랑을 한다. 명혜는 자신의 감정이 “막을 수도 없고 견제할 수도 없는 거센 힘으로 떠밀려 가기 시작한 것”을 깨닫고, 기환을 만나면서 “그녀의 영혼은 거의 전적으로 기환의 존재에 의존하여 생동하고 있다고 할 수”(244면) 있을 정도로 사랑에 몰입한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과 열정적 감정은 통제되어야 할 부정적 감정이다.

1960년대 여성잡지나 백과사전, 신문 등 기타 독물을 통해 유포된 여성 담론은 가정생활의 합리적 운영자로서의 현대적 여성과 전통적인 미와 가치의 수호자로서의 여성을 동시에 여성의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이

와 같은 양가적인 여성(성)은 담론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주체(작가)들에게도 내면화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고려하기에 앞서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감정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구조해야 했다. 사랑이나 연애는 결혼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결혼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사랑, 연애, 낭만적 열정 등은 가정의 숭고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상상적으로 욕망할 수는 있되 궁극적으로는 금기시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감정이었다. 여성에게는 공적 영역에서 생존경쟁에서 지친 남성(남편)을 위무하는 내조자 역할, 가정의 주부이자 어머니 역할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이 부과되었다. 가령 작품에서 명혜는 “결혼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것이 있다”는 당대 여성에게 주어진 가치나 윤리의식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이성과 반대되는 감정의 흔들림으로 피를 흘리”는 갈등 끝에 이혼하고 자기에게 오라는 기환의 프러포즈를 거절하고, 결혼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다. “아내의 욕신이 순결하고, 완전히 그의 것이기만 하면 만족”하고, 정신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남편에 대한 혐오와 공포감을 감내하고,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슬픔. 그것은 잣아들 듯한 괴롬이었으나 사람을 사랑한 찬란한 대가가 틀림없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결말은 욕망과 규범, 일탈과 순응 사이에서 갈등하던 여성이 결국 주어진 여성성과 가정성에 순응하기 위한 자기 구제적 알리바이로 읽힌다.

이는 『여상』 지 연재 당시 저자가 밝힌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영혼을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를 보내며, 스스로 택한 길에 견디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 때 그 슬픔은 아프지만 찬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결혼 제도 바깥의 열정적, 낭만적인 사랑은 남성-가부장의 물질성, 폭력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탈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그 사랑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부정하고, “아프지만 찬란한” 슬픔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모순적 담론을 구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모순은 개인이 주어진 여성성을 부정하고, 제도 밖에서 주체적으로 감정(열정)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1960년대 『여상』이나 『여원』이 여러 담론을 통해 유포했던 이상적 가정성, 여성성 모델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잡지나 신문 등 대중 매체가 대중의 취향과 이데올로기를 조율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찬란한 슬픔’이라는 역설적 제목 속의 숨은 의도는 열정의 순ちに 있다고 볼 수 있다.

5회 수상작인 전병순의 『또 하나의 고독』 역시 제도 밖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윤리적 비판으로 귀결된다. 이 작품은 7년 8개월여에 걸친, 교사 최수진과 기혼남성 영재 간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고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수진에게 “사랑이란 처음의 동기가 더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의 자세가 오히려 중요”하며, 그 자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심정적이며 감정적으로 자기 본연의 사랑을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철학하는 경우”이다. 수진은 자신의 사랑을 후자, ‘로고스’와 ‘듀티(의무)’가 따르는 본질적인 것(123면)이라고 합리화한다. 영재와 자신의 관계는 조건이나 안정된 생활의 보장과 같은 현실원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이해타산을 초월해서 좋다는 기분 하나가 바탕이 되어 맺어진 사이”(140면)라는 것이다. 현실원리보다는 정신에 기반한 사랑은 수진이라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랑을 기획하고 실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낭만적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녀 당사자 둘의 위치가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남성인 영재에게 아내인 경옥과 혼외 관계인 수진은 “두 가지 다른 욕정”의 모습을 지닌 존재이므로, 결혼과 결혼 제도 밖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자 한다. 영재의 이중성은 아내인 경옥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의존성을 혐오하고,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을 혼외 관계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로 사용하는 한편 수진이 정작 ‘가정적 안정’을 욕망하자 “당신의 생활을 따로 가져라”라고 주문하는 데서 드러난다. 영재는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 자로서 아내와 아이들에게서는 메워지지 않는 ‘공허’, “소중하고 귀여운 가족들하고만 붙어 오순도순 살아가기엔 벽찬 이 사회의 유동성 앞에 소외당한 듯한 불안” 앞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 생활을 하는 수진이 위안을 주었다고 고백한다. 공사 영역에서

맞닥뜨린 남성성의 위기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기제로 혼외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재와 수진 간의 낭만적(이라고 가장된) 사랑, 영재와 경옥 간의 합법적으로 승인된 관계 양 쪽 모두 남녀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 경옥이 자살하고, 수진이 ‘가정적 행복’과 영재를 ‘독점’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자책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결론에서 볼 수 있듯 결혼 제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작가는 후기에서 “사랑 부재라는 현대의 정신적 풍토 위에, 영원한 계산 없는 여자의 사랑의 참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아내의 사랑의 자세는 약했으며”, 아내이면서 동시에 애인인 여자의 사랑을 이상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계산 없는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상화는 사랑부재의 근대 결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낭만적 사랑은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닌 남성(성)의 판타지를 충족하고, 사적 영역에서 남녀 위계가 분명한 현실과는 ‘다른’ 사랑을 욕망하는 독자 대중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1960년대 국가주의 담론은 근대화와 개발, 발전을 지향하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나 개인주의에 기반한 문화나 정신은 경계하는 모순적인, 하지만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국적 모델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관된 담론을 구사했다. 강신재와 전병순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와 같은 담론이 규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고등 혹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엘리트 여성이자 관료나 사업가의 아내 노릇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동경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서구식의 소비주의와 자유연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고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처’로서 집안의 천사로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대 제도나 남편(성)의 속물성, 폭력성, 가부장성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찰성과 비판능력은 남성(성)에게는 위기감과 불안을 가져온다. 때문에 이와 같은 엘리트 중산층 기혼여성에게는 이와

같은 비판을 봉쇄하고 대체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역할을 할당했던 것이다. 전병순 소설의 ‘경옥’, 강신재 소설의 ‘명혜’가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독자들은 부르주아 계층의 일탈적 욕망이나 비윤리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게 된다. 즉 여성-대중의 욕망을 단속하고, 윤리적으로 교화하려는 의도가 ‘대중’연애 소설이라는 연성화(軟性化)된 양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5. 대중성과 계몽성 사이에서 씨름하기, ‘한국여류문학상’이 남긴 것

한국여류문학상은 1960년대 중·후반에 걸쳐 6회에 걸쳐 시행된 한시적 기획에 가깝고, 장르적으로는 장편소설, 대중소설에 편중되었다. 이와 같은 비주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여류문학상은 1960년대 여성문학장의 형성과 특성을 주도하는 데 기여했다. 수상작들이 해당 작가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후 문학사에서 배제되거나 문학 장의 정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령 최정희의 『인간사』,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은 식민지 시기, 한국전쟁기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전환기에 여성주체와 남성주체가 처한 위기와 생존 의지, 성장과 성숙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성을 띤다. 때문에 이후 삼중당 문고나 장편 중심의 기획성 문학전집에 꾸준히 수록되었다. 불안정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전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이다.

두 작품을 제외한 강신재, 손장순, 전병순, 임옥인의 수상작들을 이들의 대표작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후 연애와 결혼제도를 둘러싼 가치관의 혼란과 각축양상을 부르주아 혹은 지식인에 정향된 연애소설 양식으로 풀어냄으로써 대중들의 감수성과 취향에 부합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들의 소설이 본격소설과 각축을 벌이면서 연애소설이라는 대중의 감수성과 취향에 부합했기 때문에 대중소설, 장편소설 중심으로 편재된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때문에 ‘한국

여류문학상’은 단발성 기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여성문학의 특성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 시기 여성문학이 이전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징표를 제공한다.

둘째, ‘한국여류문학상’은 당시 <한국여류문학인회> 주도로 기획된 정전만들기와는 다른 (장편)소설의 여성화라는 소위 탈중심적 속성을 띠면서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성격을 다양하게 주도하는 데 상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여성문학 장의 기원이 근대 초기, 여성문학 장의 형성 시점이 1930년대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1930년대 여성문학 장에서 장편소설 양식, 대중소설 양식을 실험한 여성작가들은 강경애, 박화성, 김말봉에 불과했다. 연애소설, 가정소설과 같은 소설의 하위 양식들은 근대소설의 발생기부터 존재했다 하더라도 1960년대에 이르러 흥성해지고, 대중의 취향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더욱이 1965년 <한국여류문학인회>가 결성되고, 이 집단이 독자적인 문학전집을 발간하면서 정전 만들기를 꾀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한국여류문학상’은 여성문학 전집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문학 전집이 식민지 시기 이후 여성작가의 계보 작성에 치중해 전전, 전후 세대를 막론하여 작가들의 작품을 집대성하는 종합의 원칙에 입각해 단편소설, 시, 평론, 에세이까지 포괄하는 범장르적 성격을 띠었다면, 한국여류문학상은 장편소설 중심, 특정 작가 선별의 원칙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여성문학 장에서 ‘한국여류문학전집’과 ‘한국여류문학상’은 서로의 빈 틈을 메워주는 상호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성문학, 여성작가의 위상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여류문학상’은 근·현대 여성문학 장 내부의 세대교체를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여류문학상 수상 작가들은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후, 전후 여성문학 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최정희부터 전후 세대라 할 수 있는 박경리, 강신재, 전병순, 손장순까지 포괄하였다. 특히 전후 신진여성작가들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넷째,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들에서 당대 여성들의 공통감각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수상작들은 대체로 여성잡지나 문학잡지 등 매체에 연재되었던 만큼, 독자들이 문학-문화 취향을 갖추고, 매체를 소비할 수 있는 지적, 경제적 능력을 겸비한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수상작들은 1960년대 여성지식인 및 부르주아 여성의 취향이나 욕망을 대변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정희의 『인간사』를 제외하면 주 초점화 인물이 부르주아 여성이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는 점, 이 여성들이 남편(남성)의 부도덕성, 왜곡된 남성성, 탐욕 등을 혐오,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다룸으로써 전후 부르주아 지식인 남성 중심의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항으로 한다. 한국전쟁 전후, 그리고 4.19 혁명 전후의 한국 사회를 두고 가치관의 혼란 상태, 아메리카니즘과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질서 간의 각축 등을 말하지만 수상작들은 유독 당대 사회, 특히 결혼 제도와 불화하면서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열망하거나 고수하는 여성인물들을 그린다. 이들은 결혼 제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분석하고 해부하고 비판과 성찰을 행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 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 남성들은 여성에게 가부장적 폭력을 휘두르거나 순응과 복종을 요구하며, 실패한 남성들 역시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자신들의 열등감과 불안을 여성에게 투사한다. 때문에 수상작들은 공통적으로 연애와 결혼제도라는 사적 영역의 프리즘으로 1960년대 한국사회를 진단하며, 한국사회의 불안과 병폐, 위기 상황을 남성성의 위기로 표현한다. 필자는 이것이 1960년대 여성작가와 여성독자들이 공유한 공통감각이라고 본다.

다섯째, ‘여류’라는 이름으로 특화된 수상작들은 젠더화된 문화 교양 및 국가주의가 요구하는 여성적 자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는 발전과 개발을 모토로 한 초남성(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그런데 이 시기 담론에서는 근대화와 개발을 독려하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나 개인주의에 기반한 문화는 경계하는 모순적인, 하지만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국적 모델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관

된 담론을 구사했다. 근대적 교육이나 교양의 세례를 받은, 가정생활의 합리적 운영자로서의 여성, 서구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되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양가적 여성, 섹슈얼리티, 소비와 같은 욕망을 절제하는 교양 있는 여성이 당시 여성교양 담론이 권장한 여성의 상이었다. 수상작들에서 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 모성성에 반발하고 저항하지만, 결국 제도나 가족 질서 밖의 욕망을 억누르고 주부 혹은 아내의 역할로 귀환한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갈등이나 욕망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굳이 수상작들이 주어진 여성성에 균열을 내는 지점들을 찾자면, 이들이 가면으로서의 여성성을 연기한다는 점, 남성성의 위기가 결말에 이르기까지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에 수상작들은 ‘청년’ 세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한국인』이 청년들의 한일협정 반대 데모, 『인간사』가 4.19 세대 청년들의 등장으로 끝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전병순의 『또 하나의 고독』은 영재의 집에 기숙하는 여대생 국회의 입을 통해 진정성을 결여한 사랑을 좇고, 새 삶을 모색하지 않고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기성세대를 비판한다. 즉 ‘청년’ 세대가 상징하는 강인함, 새로운 질서는 몰락한 남성성, 순응적 여성성을 대체하는 가치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들은 (여성) 독자의 취향을 고려한 대중적 글쓰기 실천을 통해 한국전쟁기와 전후, 1960년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여성의 삶과 일상, 욕망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였다. 이는 여성의 글쓰기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응하는 양상을 포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구원의 문제와 여성의 인식방법』,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207~250쪽.
-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 『역사 다시 쓰기-최정희의 『인간사』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25~256쪽.
-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61~91쪽.
- 『근대 여성문학의 형성 원리 연구-정전의 형성과 ‘여성성’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3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241~263쪽.
-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페미니즘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7~222쪽.
-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27~163쪽.
- 김예립.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339~375쪽.
-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강신재의 장편 연재소설을 대상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115~145쪽.
- 『여성의 교양화 과정과 젠더화된 글쓰기의 이중 전략-60년대 여성 잡지의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31집,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65~95쪽.
-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

대 박사논문, 2003, 1~153쪽.

『여성작가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여성문학연구』 13호, 한국성문학학회, 2005, 311~336쪽.

서정자. 『자기의 서사화와 진정성의 문제-임옥인의 <일상의 모험>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제2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2, 143~173쪽.

송인화. 『1960년대 『여원』 연재소설 연구-연애담론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293~336쪽.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95, 339~349쪽.

이선옥. 『『여원』의 중심담론과 여성들의 글쓰기-여류현상문예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337~369쪽.

임금복. 『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 장편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7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55~90쪽.

장두영. 『불행, 성숙에 이르는 길-『한국인』의 손장순론』, 방민호 외,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97~225쪽.

전혜자. 『현대소설의 도시생태적 독법에 대한 연구-손장순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2호. 현대소설학회, 1999, 213~231쪽.

조남현. 『『시장과 전장』의 이념 검증』, 『한국 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250~272쪽.

최경희. 『1960년대 강신재 소설에 나타난 근대화의 ‘망탈리테’ 연구-〈여성상〉 담론과 『이 찬란한 슬픔을』에 나타난 여성 교양의 의미와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5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373~392쪽.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엮음. 왕숙영 옮김.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Abstract

Prize of Korean Women's Literature as Literary Institution and Formation of Women's Literature in 1960s

Kim, Yongsun

This thesis inquires into the formation of women's literary field in 1960s through the works of 'prize of Korean women's literature'. The 'prize of Korean women's literature' from 1964 to 1969 can be the barometer which comprehend the change of generation in post-war women's literary field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femininity and the desire of female subject. In this thesis, I tried to some tendencies rather than the detailed analysis about each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k Keong-ri's *Market and Battlefield*, Choi Jeong-hee's *History of Human*, Sohn Jang-soon's *Korean* are related with the theme of 'engendering of Korean modern history—the fall and resurrection of masculinity, the femininity between institutionalization and resistance'. These novels represent the crisis of nationalism during Korean war, post Korean war, and 4.19 citizen's revolution, post 4.19. Those showed this crisis through the crisis and fall of masculinity or the ambivalence of pliable femininity and subversive femininity.

Second, Kang Shin-jae's *This Splendid Sorrow*, Jeon Beong-soon's *Another Solitude* can be categorized as the 'Bourgeois domestic nove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omantic love'. These novels criticized the illusionary image of sweet home of bourgeois family

through the loveless family and the woman who dreams the romantic love outside the family. However, these novels enforce the ascribed femininity, institutionalized femininity, because the romantic love can not be accomplished, and then these women returned to their families.

Finally, ‘prize of Korean women’s literature’ in women’s literary field of 1960s can be characterized to lead the feminization of full length novel, and imprint the new generation of women writers. Furthermore, These novels represent the tastes or desires of women intellectuals and bourgeois women, diagnose Korean society through the prism of private sphere like love or marriage, and express the anxieties and maladies of Korean society as the crisis of masculinity. Because of these reasons, these novels can contribute the formation of common senses between women writers and women readers.

Key words: prize of Korean women’s literature, women’s literary field in 1960s, institutionalization of femininity, romantic love, taste, common sense

